

2024년 6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임윤주	6/2	[일요와이드]'전기 먹는 하마' AI...효율 높이기 경쟁 [뉴스센터13]소득보다 더 오른 먹거리 물가...서민 밥상 '부담'	
안지연	6/9	[뉴스투나잇]은행 예금·대출금리 모두 하락...주담대 6개월째 ↓ [뉴스오늘]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수거 중단해야"...학교는 거부	
박세진	6/16	[뉴스센터]네 차례 '오물풍선' 도발...군, 고정식 확성기 가동 [뉴스1번지]다시 권 대북 확성기에 또 오물 풍선...갈등 확산일로	
임윤주	6/23	[뉴스리뷰]'어대한' 기류에 잇단 견제구...김재섭 출마 저울질 [뉴스센터]'친문 적자' 김경수 다시 출국..."정치는 국민에 희망 줘야"	
김홍태	6/30	[뉴스현장]화성 화재현장서 실종자 추정 시신 수습...합동감식 진행 [현장연결]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서 불...1명 사망·21명 실종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임기연장 성비고려 및 탁월한 비평으로 방송에 기여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6/2(일)	임윤주	다음은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보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 여성을 지속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범인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7월 정부는 합의하더라도 신고를 취하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 단계에선 접근 금지와 같은 조치만 취할 수 있다 보니, 이 기간 동안 가해자 치료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수사 매뉴얼은 피해자의 목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그 이상 질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횟수를 일일이 정리해 범죄 일람표를 만드는 과정에 드는 시간도 적지 않아, 관련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시행 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왔습니다. 시행 3년이 되는 시점에 또 한 번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용된 전문가의 인터뷰를 확인해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인데요. 해당 부분을 명시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싱 범죄, 흥기 범죄, 성착취물 범죄 등과 더불어 최근 부쩍 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스토킹 범죄입니다. 스토킹의 개념과 한계에 대한 사회 구성의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과 사건 위치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세하면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4 6/9(일)	안지연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남부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이용객 대비 낮은 운행 횟수와 노선이 적어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지난 4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도는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경의선 열차 운행을 늘리는 등 수도권 북부의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노선이 짧거나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지면 오히려 피곤함과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보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경기 북부 대중교통 개선 대책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책 마련 배경과 그 효과를 함께 짚어주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존재했는데요, 보도에서 언급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들은 개선된 대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함께 다뤘다면 국토부의 발표 내용의 실효성을 파악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실제 대중교통 이용객과 주민, 관계자들의 입장을 다뤄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경기 북부에 신도시 인구가 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교통대책 개선안입니다. 정부의 발표안이고 실제 시행이 되면 이용자들이 느끼는 장단점을 보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의 지적처럼 정부 발표안에 해당 지역민의 목소리를 미리 반영해 보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 보도 제작 시 실제 이용자와 지역민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6/16(일)	박세진	지난 10일 보도된 <뉴스메이커>에서는 이번 대북 활성화 방송이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방송 내용면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북 활성화 방송에는 다이너마이트, 버터, 봄날 등 인기그룹 BTS의 노래와 아이유,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가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는 합참이 이번 사건을 단순 침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은 남북 간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해석	뉴스메이커라는 코너 자체가 짧은 시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코너이다 보니 비판적인 지적 사항,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다루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코너 또는 기사를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연합뉴스TV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감 고조 방지의 목적으로 해당 사안을 지연 발표한 군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슈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단순 침범으로 분석된 사안을 굳이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표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수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과 군사적 긴장감 고조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군사 활동의 경우 위치가 식별되지 않은 지뢰에 의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정된 경로로만 이동한다는 점에서 북한군이 침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침범 정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관측 영상 공개 등을 요청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군의 발표를 평가해 보았다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 6/23(일)	임윤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학대에 대해 보도한 <뉴스17>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 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학대와 관련하여 전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매우 시의성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학대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 그보다 드러나지 않은 가족의 학대가 문제라는 점들을 지적하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CCTV 화면 사용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다고는 하나, 폭력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더욱이 '머리채가 잡힌 채' 등 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는데요.	당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에 맞춰 관련 기사를 쓴 방송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영상으로 노출할 때 특히 조심하지만 미처 거르지 못하거나 과거 영상이 나갔던 것을 참고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영상 사용 시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차 가해 혹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사용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 6/30(일)	김홍태	지난 24일 뉴스에서는 화재 현장을 연결했는데요, 오전 경기도 화성의 한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당시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사상자 등 인명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었으며, 화재 현장 소방 당국의 브리핑을 전했습니다. 기자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문자,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2층 작업장에서는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의 화재는 사망자 23명과 부상자는 8명을 발생시키는 큰 참사였는데요, 위 방송에서는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전달감도 좋지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화재의 발생 원인과 초기 대응 상황에 대하여는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소방본부 등에서 초기 진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시청자에게 더 전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피해종합지원상황실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과 절차,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등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 반복되는 화재 참사에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다시금 산업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에 대한 점검 보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 감식팀의 조사 결과에 따른 화재 원인과 그 대응에 대한 후속 보도가 꼭 필요하고 향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화재 초기에는 원인이 바로 나오지 않고 이를 소방 당국이 단정해서 브리핑하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다만 공장 화재의 경우 어떤 제품을 다루느냐에 따라 화재 원인을 미뤄 짐작 내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리튬전지 화재가 위험하며 한번 불이 나면 장시간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최초 기자 전화연결 시 " 다만 리튬전지 특성상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는 정보를 제공했고 두 번째 연결에서는 '다만 폭발 위험이 높은 리튬전지 특성상 공장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기자 현장 백팩 연결에서 "공장 2층에 리튬전지가 3만 5천 개 가량 보관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화재 진화 과정에서 폭발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원인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당일 오후 리포트에 [안채린 기자] 리튬전지 화재, 열폭주 인화성 가스탕 진화 어려워/[김유아 기자] 사망자 대부분 일용직 외국인..."내 부구조 숙지 못한 듯"/라는 제목으로 화재 원인과 진화의 어려움,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 등을 설명했습니다. 유족 지원 등과 관련해 익일 법무부 장관 지시, 법정부 TF구성 등을 실시간 보도했고, [김예림 기자] 안전 교육 충분했다...재해에 노출된 외국인 노동자들/제

			목의 기사를 통해 산재에 노출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도 원인 분석과 당국의 대책, 추모 분위기 등을 전달했고 현재는 합동 장례 여부와 수사본부의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06. 0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5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물가 상승폭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높는데요, 관련하여 전문가와 함께 대담을 진행한 <뉴스센터 13> 살펴보겠습니다. 대담은 경제학 박사 전문가와 함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에 대해 전했습니다. 전문가는 물가 중에서도 특히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높고, 현재 이러한 현상이 문제인 이유는,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먹거리 가운데 특히 농수축산물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약 7배, 사과나 배와 같은 과실은 약 26배나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먹거리를 소비하고 나면 실질 소득은 더욱 줄어드는 셈입니다. 또한 전문가는,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현상이 7분기 연속, 즉 1년 9개월간 지속되고 있는데, 통상 2~3분기 후에는 안정을 찾았던 것에 비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관련한 다양한 배경 가운데 이상 기후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콜릿이나 올리브유와 같은 물품들은 원자재 생산 지역에서 이상 기후로 인하여 원자재 생산량이 떨어진 것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대담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본다'는 취지에 맞게, 경제 이슈는 물론 관련 용어나 수치까지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도 적절하게 덧붙여져 항상 도움이 되는 대담인데요. 이번 대담 역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물가와 관련하여 쉽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뿐 아니라 제공되는 자료 화면도 용어 설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요. 대담을 진행하는 앵커도 제공되는 자료 화면이 전문가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써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설명에도, 이제는 기후변화가 '어찌

다 일어나는 변수가 아니라, 늘 대비해야 하는 상수가 됐다'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수급의 변동을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는 물론 중장기적인 대비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져 현안뿐 아니라 향후 대책까지 전달한 의미 있는 대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인 AI 확대와 함께 살펴본 <일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구동에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때문에 소위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인 챗GPT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구글 검색에 쓰이는 전력의 10배에 가까운 전력이 필요합니다. 1개의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전기는 일반 가정 100가구의 연간 전기 사용량을 초과한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게다가 AI 개발과 유지에 필수인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선 더 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비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6년 데이터 전력 사용량이 2022년 전력 사용량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때문에 전력 소비량을 메울 에너지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데다, 설비 확충 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른 천연가스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결과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어서, 전 세계적 탄소 감축 계획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AI 기술은 생활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익숙해진 AI 기술도 많습니다. 때문에, AI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는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보도는 자칫 생각해보지 못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보도로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AI가 기후변화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오히려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와 대비되는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끝내 21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의견을 전달한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던 현장인 국회에서,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양측은 21대 국회에서 1차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장과 졸속 추진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모수개혁은 국민들이 연금에 '낼 돈'과 '받을 돈'의 비율을 정하는 것인데, 해당 비율에 대해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봤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 양보로 의견일치가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가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별도 본회의 개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해서 연금개혁의 골격을 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별개로 진행하면, 모순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번에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보도는 기자가 국회 앞에서 현장 리포팅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의 상황이 잘 전달되는 보도였습니다. 보도 내용도 양측이 어떤 부분에서 대립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잘 전달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여야 간 공방 내용을 한정된 보도 시간 내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리가 기사 제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여 기사 제목을 작성함에 있어, 요약한 부분의 초점이 여야 각기 다르게 나타나 전달력이 다소 하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장감을 살린 또 다른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을 가득 메운 까마귀에 대해 보도한 <뉴스위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와 여성을 향해 공격하는 까마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들의 공격은 무려 2주 동안 이어졌고, 피해를 봤다는 주민들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아파트 인근에 동지를 튼 까마귀들이 사람들이 다가오자, 새끼를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만 포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심에 나타나는 까마귀 수가 20년 전에 비해 80%가량 늘어난 만큼, 이제는 까마귀의 행동과 습성을 고려해 개체 수 조절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하였듯, 도심에 나타나는 까마귀 수는 20년 전에 비해 80%가 늘었는데, 그만큼 관련 보도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보도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보도는 단순히 도심 속 까마귀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행된지 3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보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 여성을 지속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범인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게 되자 합의를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7월 정부는 합의하더라도 신고를 취하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 단계에선 접근 금지와 같은 조치만 취할 수 있다 보니, 이 기간 동안 가해자 치료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수사 매뉴얼은 피해자의 목시적인 거절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그 이상 질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횡수를 일일이 정리해 범죄 일람표를 만드는 과정에 드는 시간도 적지 않아, 관련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시행 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왔습니다. 시행 3년이 되는 시점에 또 한 번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용된 전문가의 인터뷰를 확인해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

과 발표인데요. 해당 부분을 명시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시청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06. 0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5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때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어도 은행 대출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가파른 이자 부담의 증가로 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최근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해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인용해 은행 예금과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을 전했습니다. 지난 달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저축성 수신 금리는 연 3.53%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하락했고 전달 대출금리 역시 3월보다 0.08%포인트 떨어진 4.77%였다고 덧붙였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지표금리의 하락과 일부 은행의 영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3.93%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하락해 6개월째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최근 6개월 간의 금융기관 평균 금리와 금리 하락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요한 뉴스 소재로 다루어지는데, 이 보도에서는 단신으로 내용을 전달해 금리의 하락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살펴볼 수 없어 아쉽게 느껴집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과 부동산 거래의 흐름, 대출금리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의 우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내용 전달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금리의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유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6개월 간의 금리 추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서 내용을 전달한다면 시청자들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이롭게도 하지만 중독을 야기하는 등 각종 문제를 유발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하교할 때 까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학생의 인권 침해로 이어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는 지난 1일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 중단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학교의 중학생이 2022년 9월 인권위에 하교할 때 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인권 침해의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의무 제출로 수정해 인권위는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보도는 인권위의 입장만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도 내용만 살펴본다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담지 않아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으로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찬반의 입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된다는 주장과 학생 선도 및 관리, 수업 등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집중도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에서 이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처사라는 등의 지적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찬반 입장이 양립되고 있는 만큼 인권위, 학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다루어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보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이돌 그룹이 인기를 끌면서 앨범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밀리언셀러는 음반이 백만 장 이상 팔린 것을 의미해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가수가 많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백만 장 이상 음반을 판 밀리언셀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덤 규모가 커지고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도 많아진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친 상술이 자리잡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BTS 소속사인 빅히트가 팬들에게 재고 음반 구입을 부추겨 논란이 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오는 12일 BTS 멤버 진은 군대 전역을 앞두고 BTS 데뷔일인 13일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소속사는 행사 응모 기준을 이달 2일부터 6일 사이 BTS의 음반을 구매한 사람으로 안내했습니다. 행사 참여에 당첨되려면 기존에 음반을 샀던 팬도 같은 음반을 또 사야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행태에 음반 떠넘기기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밀어내기는 신규 앨범의 초동 판매 신기록을 위해 유통사와 판매처에 팬사인회 등을 조건으로 음반을 대량으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팬들에게 음반 재고까지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에 빅히트는 응모 기준을 기존 음반 구매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앨범 판매량이나 음악 방송 순위 등 팬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지워야 되고 그들에게 소비를 촉구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까지 K팝 업계에서 무분별하게 통용되고 있다는 음악평론가의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케이팝 업계에서는 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케이팝 아이돌들은 매년 최고 음반 판매량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토카드와 팬사인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음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앨범에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넣어 좋아하는 멤버가 나올 때 까지 앨범을 구입 하도록 유도하고 추첨제로 진행되는 팬사인회에 참여하기 위해 수 백, 수 천만 원 이상을 앨범 구매에 지출하도록 유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매한 앨범들은 감상용과 소장용으로 구분해서 가지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됩니다. 이 보도는

BTS 관련 행사 소식을 안내함과 동시에 케이팝 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짚어주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케이팝 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어 올바른 케이팝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팝 앨범 판매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 업계와 전문가, 팬들의 의견을 덧붙인다면 보다 풍부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고 케이팝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남부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 이용객 대비 낮은 운행 횟수와 노선이 적어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 지난 4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도는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경의선 열차운행을 늘리는 등 수도권 북부의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버스 증차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경기 양주 덕정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간 2번 운행하던 것을 정부가 연말부터 2회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고,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잠실역을 오가는 버스 또한 출근 시간대 기존 4번에서 1번 더 추가 운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철도 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도 전했는데요, 경의중앙선 문산~용산 구간에 하루 4회 운행되는 내칸짜리 출퇴근 전용 열차는 내년 상반기부터 8칸으로 늘어나고 고양 대곡과 의정부역을 연결하는 교외선 철도는 올해 연말 20년 만에 운행을 재개해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주 운정과 고양 창릉 등 북부권 신도시 인구가 늘고 있지만 남부권에 비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북부 지역 인프라와 통행 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 이동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동 노선이 짧거나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피곤함과 불편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보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경기 북부 대중교통 개선 대책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책 마련 배경과 그 효과를 함께 짚어주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존재했는데요, 보도에서 언급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들은 개선된 대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함께 다뤘다면 국토부의 발표 내용의 실효성을 파악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실제 대중교통 이용객과 주민, 관계자들의 입장을 다뤄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4. 06. 1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5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전국에 걸쳐 낙하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

되는 도발에 대응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 하는 한편 대북 확성기 가동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내부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장 꺼려하는 조치로 평가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오후 우리 군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했던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했습니다. "자유의 메아리 훈련"으로 명명된 이번 조치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고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도발한다면 추가로 대북 방송을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10일 방송된 <1번지 이슈>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배경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로 출연한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9.19 군사합의 무력화 조치 및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북한이 맞대응 하기 위한 수단이며,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우리나라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있고, 세 번째는 유사시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 군사도발 수단으로서 풍선을 시험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4차 풍선 도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북한이 남풍에도 불구하고 풍선을 날려보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남쪽으로 풍선이 날아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가 경직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우리의 대북 확성기 재가동에 대한 대응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김여정이 앞으로 남측의 조치가 지속 될 경우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향후 발생 가능한 북한의 도발로는 대남 확성기 가동, 대북 확성기에 대한 직접 조준사격, 서해상 국지도발, 그리고 대남 풍선에 생화학 물질 등의 위험 물질을 포함해 날려보내는 방법 등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적시적인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이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번지 이슈>에서 북한이 오물 풍선 날리기라는 상식 밖의 도발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오물 풍선이 단순한 구시대적 도발이 아니라 새로운 대남 도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청자들에게 알렸고, 북한의 향후 도발 양상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도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오물 풍선 도발을 한 시기부터 풍선을 격추하는 등 적극적 방어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하 지점 통제 및 오물 수거 등의 소극적 대응에 그친 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함께 전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도 풍선이 낙하해 경호 및 방어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오물 풍선의 내부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격추 등의 적극적 대응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균형적인 시각에서 군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에 따라 북한에 전달되는 대북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처음으로 송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한 <뉴스메이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보도된 <뉴스메이커>에서는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지난 2018년 이후 6년만에 재개되었으며, 방송 내용면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다이어마이트, 버터, 뽕날 등 인기그룹 BTS의 노래와 아이유, 볼빨간사춘기의 노래가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 내에 MZ세대가 많기 때문에 북한 청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편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중 가요 외에 날씨 예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 예보는 이전부터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대북방송 콘텐츠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엉터리 기상 예보보다 훨씬 정확한 예보가 반복되다 보면 북한 주민들이 대북 방송에 점차 귀 기울이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날씨에 더해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도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대북 방송 아나운서가 북한에서 거래되는 달러, 쌀, 옥수수, 휘발유 가격을 알려주고, "삼성전자의 손전화기가 전 세계 38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며 대한민국의 우수성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최대 30 킬로미터까지 전달되어 북한군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가장 치명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선전포고"라며 크게 반발했고 남북회담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송출이 재개된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할 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궁금하게 느꼈을 텐데 이러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준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뉴스 보도의 형태에서 벗어나 앵커가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는 연성뉴스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쉽게 전달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평가됩니다.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군인의 숫자는 20에서 30여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무장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의 11일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가 가동된 지난 9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퇴각했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1일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비무장지대에 수풀이 우거져 있고 군사분계선 표식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던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

사격 이후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함참이 이번 사건을 단순침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은 남북간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연합뉴스TV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감 고조 방지의 목적으로 해당 사안을 지연 발표한 군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이슈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단순침범으로 분석된 사안을 군이 이들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표하는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실수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과 군사적 긴장감 고조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군사활동의 경우 위치가 식별되지 않은 지뢰에 의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정된 경로로만 이동한다는 점에서 북한군이 침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침범 정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관측 영상 공개 등을 요청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군의 발표를 평가해 보았다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06. 2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5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보도되는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방송 뉴스도 온라인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다양한 취재원들로부터 많은 사실을 담아야 하는 정치 뉴스는, 상대적 뉴스 가치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 제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어떠한 기사 제목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뉴스 리뷰>와 <뉴스 센터>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민심 반영 비율을 고민하던 끝에, 20%로 결정된 것입니다. 현행 10대 0인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지나치게 큰 폭으로 바꿀 경우,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전대 출마를 위한 '캠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인물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선인 김재섭 의원도 '당권도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사실상 모두 '비윤'이라, 당대표 선거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당심', 그 중 '친윤 성향' 당원 표가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있습니다. 본 보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발언을 전

했습니다. 보도 제목은 <'어대한' 기류에 잇단 견제구, 김재섭 출마 저울질>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어대한'이라는 줄임말 표기입니다. 줄임말은 보도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연합뉴스TV 공식 홈페이지 상에서 해당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때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줄임말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명칭이나 정책명을 줄이는 등 공식적인 용어의 줄임말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소위 '밈'으로 쓰이던 말을 차용한 것입니다. 기사를 전하기에 앞서, 앵커가 '한동훈 대세론'이라고 정리한 바 있는데요. 앵커 멘트처럼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존재하니, 향후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뉴스 센터>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영국 출국길에 오르며,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한다"며 "정치인 한 사람으로 깊이 성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역할론과 관련해선 "귀국 이후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국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차 잠시 귀국했으며, 앞으로 독일에 머물다 연말쯤 귀국할 예정입니다. 본 보도의 제목은 <'친문 적자' 김경수 다시 출국...> "정치는 국민에 희망 줘야">입니다. 이번 보도의 제목 역시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공식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국길에 했던 발언이, 단신이지만 뉴스 가치를 띄고 보도된 배경이 바로 그가 친 문재인 전 대통령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어가 이러한 배경을 한 단어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임에는 분명하나, 빈번한 사용은 되도록 자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직접 인용 표기를 사용한 <뉴스 센터>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것을 놓고 벌어진 정치권 공방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북한에 현금을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면서 "검찰이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대북송금 재판까지 추가돼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보도의 제목은 <"검찰 주장 상식에 어긋..."> "방탄 위해 사법부 무력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요 발언을 요약했는데요. 주의하여 살펴볼 부분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견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보도에서 인용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방탄'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색해본 결과, 실제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발언임에는 분명하나, 보도에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 실제 그가 발언한 단어인지, 임의로 요약되어 사용된 단어인지 본 보도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 보도의 제목은 보도되는 동안 자료 화면 아래 자막으로도 노출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요, 벌써 한낮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컨 가동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하

여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전달한 <뉴스 투나잇>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에어컨 화재 재현 실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실험은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친환경 냉매를 누출시키고 불꽃 방전을 일으켜 보았고, 금세 냉매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 에어컨 실외기 옆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는 상황을 재현하였고, 이번에도 역시 배관에서 친환경 냉매가 새어 나오자 크게 불길이 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존 냉매와 달리 친환경 냉매는 가연성으로 불이 붙는 물질입니다. 지구 온난화 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소불화탄소 감축을 이행하는 '키갈리 개정서' 채택으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기존에 쓰던 냉매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친환경 냉매가 들어간 제품이 나오고 있지만, 가연성 가스라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 건수는 290여 건으로, 친환경 냉매가 들어간 제품은 불이 더 번질 수 있어 화재 예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어컨 설치 시 전선 방식이나 실외기 주변 정리, 냉매를 충전할 때에는 환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 보도는 직접 실험 현장을 가장 먼저 보여줌으로써, 보도가 전하고자 하는 위험을 시청각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친환경 냉매 사용 증가의 배경과 필요성도 전하는 한편, 가장 큰 위험성인 화재 발생에 대해 중요하게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하였듯,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가연성 가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예방해야 할 부분도 잘 정리했는데요, 향후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도 정리한다면 더욱 도움이 되는 보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학대에 대해 보도한 <뉴스17>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 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 학대와 관련하여 전했습니다. 먼저 한 가정집의 실제 CCTV의 화면을 통해,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요양보호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학대는 이러한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 여러 유형의 노인 학대가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합니다. 심지어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학대로,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의 약 70%는 가족이었습니다. 학대 신고 셋 중 하나는 배우자, 또 셋 중 하나는 자녀였습니다. 차마 가족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대는 수치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 협력해 이번 한달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매우 시의성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학대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 그보다 드러나지 않은 가족의 학대가 문제라는 점들을 지적하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CCTV 화면 사용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

었다고는 하나, 폭력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더욱이 '머리채가 잡힌 채' 등 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2차 가해 혹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사용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06. 3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5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뉴스잇에서는 지난 달 구직 활동을 '그냥 쉰' 청년은 1년 전보다 1만 3천 명 늘어난 39만 8천 명으로 5월 통계 중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뉴스15에서는 오랜 기간 침체됐던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데요, 반도체 산업이 하반기 강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건설업에선 침체가 이어질 것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내도 운전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도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25일과 24일 뉴스특보인데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당시까지 사망자 23명과 부상자는 8명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공장 3동 2층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고 전했는데요,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합동 감식도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9개 관계기관이 모여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구조권이 최초로 마킹한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쳤고 오전 11시 34분쯤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확인했는데요, 시신은 훼손이 심해 당장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추후 DNA 채취 및 유족 대조를 거쳐야 인적 사항이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시신 1구가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8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고 인명피해는 총 31명이며, 사망자 중 남성이 6명이고 여성이 17명인데요.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5명, 중국 국적자가 17명, 라오스인이 1명으로 이 가운데 시신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한국인 사망자 2명뿐이라고 합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 신원이 파악하는 대로 유가족과 연결하고 외국 가족들의 귀국 수속 등을 돕겠다고 설명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준비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4일 뉴스에서는 화재현장을 연결했는데요, 오전 경기도 화성의 한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당시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사상자 등 인명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었으며, 화재 현장 소방당국의 브리핑을 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김진영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내부 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 일단은 밖으로 수습을 한 다음에, 의료진들이 나와 있어서 거기서 판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며 마무리 단계가 되면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당시 본격적으로 수색 구조작업이 돌입이 됐고 당시까지 확인된 사항은 23명이 실종 상태라고만 전했습니다. 건물의 사무실이 다 타버리면서 작업자 근로자 명부가 다 타버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 종합상황실에서 실종된 사람의 휴대전화를 따서 위치추적을 했는데 이 부근으로 다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묻자,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2층 작업장에서는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해서 납품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의 화재

는 사망자 23명과 부상자는 8명을 발생시키는 큰 참사였는데, 위 방송에서는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전달감도 좋지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화재의 발생 원인과 초기 대응 상황에 대하여는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소방본부등에서 초기 진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시청자에게 더 전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피해종합지원상황실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과 절차,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등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 반복되는 화재 참사에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다시기 산업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에 대한 점검 보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 감식팀의 조사 결과에 따른 화재 원인과 그 대응에 대한 후속 보도가 꼭 필요하고 향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24일 뉴스잇에서는 가사나 욕아, 투병 등 중대 사유 없이 "그냥 쉰다"고 대답한 비경제활동인구를 통계청은 '쉬었음'으로 분류하는데, 지난 달, 구직활동을 '그냥 쉰' 청년은 1년 전보다 1만 3천 명 늘어난 39만 8천 명으로 5월 통계 중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도 12만여 명으로 늘었는데, 전체 구직 단념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큰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쉬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을 아예 단념한 청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우리 경제의 '아픈 손가락' 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주민 최유덕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치는 것이 아닌가...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았을 때 괴리감에서 도피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고 얘기하고요, 경기 고양 일산동구 주민 고은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선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라면서, 기준선에 맞추지 못할 바에는 포기하는 심리도 크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상용 근로자인 청년층은 19만 5천 명 줄어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는데, 신입 공채보다 수시·상시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들 분위기는 청년층 취업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하반기 이후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활력 넘치는 고용에 대한 기대는 커녕, 불안한 시장 상황 속 청년들의 구직 의욕마저 꺾이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쉬었음 현상에 대한 분석은 많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년층이 구직을 단념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심리적 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의 보도와 함께 경제적 불확실성, 고용시장의 변화,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압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통계 자료를 시각적으로 제공해서 시청자들이 더 쉽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도 한 번은 짚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청년들이 느끼는 압박감과 좌절감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점을 강하게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뉴스15에서는 오랜 기간 침체됐던 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 반도체 산업이 하반기 강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건설업에선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업종별로 명암이 갈린다고 전했습니다. 금융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달 23일 IT경기는 AI 투자 수요에 힘 입어 당초 예상보다 상승세가 빠를 것으로 전제했다며, 이런 기본 가정에 기초해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금년 2.5% 내년 2.1%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올린건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겁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도 올 하반기 경기에 대해 '낙관론'을 내놨는데, 하지만 업종별 전망에는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전자전기와 조선 산업에는 호조를 예측했지만, 자동차, 석유, 이차전지 산업은 혼조를 전망했고, 건설 산업에 대해선 부진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건설투자 등 건설업과 관련해 둔화 흐름을 진단했는데, 누적된 고금리 기조와 국제 유가 불안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자재 값이 상승한 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 건설 수주는 아마도 예전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일거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서도, 건설 경기가 한 번에 회복되진 않을 거라 설명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모습을 짚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건설 등에 대한 전망을 크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선 업종별 전망 편차의 이유와 그 배경을 설명하면 좋을 것입니다. 즉 반도체와 전자전기 산업의 호조 원인과 자동차, 석유, 이차전지 산업의 혼조 원인에 대하여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상승과 관련하여, 이것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 산업의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즉 경제 상황의 다양한 면을 전달하여, 과도한 기대나 불안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내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합니다. 과거 A씨가 지인 B씨의 집에서 자는 도중, B씨가 A씨의 차로 몰래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는데, 앞서 2심은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 상태,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책임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1심은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차량소유주 A 씨가 항소했고 2심은 차량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차주가 사고 3년 6개월 뒤 운전자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고소했기에 운전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고 몰래 차량을 운행할 것이란 사실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지인이 몰래 운전한 차에 대한 차주의 실질적 지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평소 차량 관리 상태를 고려해 차량 운행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운행지배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과 관리상태,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무단운전 후 사후 승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이 판결이 단순히 소유주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4년 6월 2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6월 9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6월 16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6월 23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6월 30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p>